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의 ‘素證(素病)’에 대한 고찰

최병진 · 하기태 · 최달영 · 김준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Study on the ‘Dispositional Symptoms(Dispositional diseases)’ in 『Dongyi Suse Bow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Byung Jin Choi, Ha Ki Tae, Dall Yeong Choi, June Ki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Hamsansachon Dongyi Suse Bowon Gabogubon』, discovered in 2000, can give very precious information in order to stud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Dongyi Suse Bow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I examined, by comparison, changes in understanding pathology explained in 『Dongyi Suse Bow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Gabobon and Sinchukbon, and consequently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Dispositional Symptom(Dispositional disease) as below, in a point of view that ‘Dispositional Symptom(Dispositional disease)’ should be the key word in explaining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of pathology. Dispositional Symptom(dispositional disease) is a new concept tha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Kyongjabon, not found in the Gabobon, and that played a key role in editing 『Dongyi Suse Bow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 and Disease」. Dispositional Symptom(dispositional disease) means an innate temperament or a pathological tendency, which is already constructed in the system of an individual, prior to expression of specific diseases and symptoms, and can be a primary basis to tell the susceptibility and developing pattern of a certain disease, to decide how to treat and forecast the prognosis. Sinchukbon inductively categorized symptoms of the dispositional symptom (dispositional disease) into the concept of “Eight principles”, or eight standards of diagnosis, such as superficies-interior, cold-heat, and weakness-strength.

Key words : Dispositional Symptom(素證), Dispositional Disease(素病), Dongyi Suse Bowon (東醫壽世保元,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Gabobon(甲午本, Gabo version), Sinchukbon(辛丑本, Sinchuk versi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病證論)

서 론

2000년에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¹⁾은 四象醫學, 특히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의 形成과 發展過程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李聖洙²⁾의 증언을 들어 보거나, 전반적인 條文의 構成과 內容을 현존하는 辛丑本과 비교해 보면 甲午抄錄本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原形을 보면서 抄錄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³⁾ 따라서 甲午抄錄本을 바탕으로 하여 복원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의 「病證論」이 甲午本의 거의 原形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이준희 등⁴⁾의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 교신저자 : 김준기,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graywolf@dongguk.ac.kr, · Tel : 054-770-2374

· 접수 : 2006/11/21 · 수정 : 2007/01/15 · 채택 : 2007/02/05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가 소장해 왔던 것으로, 증언에 따르면 父親 李鎭胤이 1940년 韓故甲에게 의뢰하여 庚子本과 辛丑本에는 없고 甲午本에만 있는 249 條文을 抄錄한 것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해서 2001년 四象體質醫學會에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을 출간하였다.

2)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所藏者, 東武의 從曾孫.

3)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3(2):96, 2001.

4)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3(2):49-61, 2001.

본 론

病證論 考察”, 임진희 등⁵⁾의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板本에 따른 病證 概念의 變化에 관한 考察”, 한경석 등⁶⁾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病證論」의 板本에 따른 文獻의 內容變化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내재된 病理認識의 變化에 대해서는 연구가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著者は 庚子本에서 처음 도입된 ‘素證(素病)’이 甲午本과 辛丑本⁷⁾ 사이의 病理認識의 變化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관점에서 甲午本과 辛丑本 「病證論」의 주요 내용을 病理認識의 變化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하고, 辛丑本에 수록된 ‘素證(素病)’의 用例를 분석하며, 甲午本の 醫案들과 辛丑本에서 추가된 醫案들을 비교 분석하여, ‘素證(素病)’의 概念과 意義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판본소개

東武는 58세인 1894년 4월 13일에 漢南山中에서 『東醫壽世保元』을 畢書(甲午本)한 후, 咸興으로 낙향하여 1900년 9월 21일 64세로 서거할 때까지, 臨床에서 얻은 心得을 반영하여 「醫源論」에서 「太陰人 病證論」까지 改抄(庚子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01년에 門徒들의 모임인 栗洞契에서 甲午本과 庚子本에서 改抄한 내용을 습하여 初刊本(辛丑本)을 출판하였다.⁸⁾

本考에서 사용한 板本의 名稱은 한경석 등⁹⁾의 견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새로이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甲午抄錄本’이라 稱하였다.
- 2) 東武가 甲午年에 著述한 『東醫壽世保元』, 原本과 2001년 四象體質醫學會에서 발간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을 ‘甲午本’이라 通稱하였다.¹⁰⁾
- 3) 東武가 庚子年까지 改抄한 東醫壽世保元 原本을 ‘庚子本’이라 稱하였다.
- 4) 1901년 栗洞契에서 初刊하여 지금까지 전해 오는 板本을 ‘辛丑本’이라 稱하였다.

5)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13(2):62-73, 2001.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板本에 따른 病證 概念의 變化에 관한 考察, 14(1):27-33, 2002.
 6)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四象體質醫學會誌, 14(1):34-49, 2002.
 7) 東武가 甲午本을 改抄한 결과가 庚子本이나 原形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本考에서는 편의상 辛丑本을 기준으로 하였다. 庚子本과 辛丑本 「病證論」의 내용은 서로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甲午抄本의 目次에 기재된 두 板本의 「病證論」條文數도 少陽人 「泛論」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8) 辛丑本, 四象人辨證論, 18-28.
 “嗚呼! 甲午畢書後,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革.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 而其餘諸論, 未有增刪, 故並依新舊本刊行.”
 9)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書誌學의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3(2):96, 2001.
 10) 原本을 抄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誤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本考에서 「病證論」에 대한 論旨을 전개함에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便宜와 慣例에 따라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復元本』과 甲午本 原本을 ‘甲午本’으로 通稱하였다.

1.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 比較

1) 甲午本 病證論의 特徵

東武는 甲午本에서 특유의 ‘四象構造論’을 도입하여 「性命論」, 「四端論」과 「擴充論」을 서술하고, 이것을 다시 生理(臟腑論)와 病理(病證論)에 演繹의 形式으로 적용하여 규칙적인 病證分類와 일관된 病理解釋을 시도하였다. 즉 특유의 四象哲學의 思考를 醫學理論과 일치시켜 論理的 一貫性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甲午本에서는 특히 ‘表裏病理’의 규명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喜怒哀樂의 性이 深着하면 表氣를 傷하고 情이 暴發하면 裏氣를 傷하는데, 性의 深着과 情의 暴發이 偏小한 臟局의 内外를 각각 傷하여 外感表病과 內觸裏病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¹¹⁾ 또 이러한 관점에서 「病證論」의 각 篇名을 内外表裏를 기준으로 命名하였다.

表 1. 性情과 表裏氣 및 各 病證論의 篇名

四象人	性(深着)	表氣	表裏病의 篇名
	情(暴發)	裏氣	
少陰人	樂性 喜情	目·腎氣 脾·胃氣	外感腎病論 內觸胃病論
少陽人	怒性 哀情	口·膀胱氣 腎·大腸氣	外感膀胱病論 內觸大腸病論
太陰人	哀性 怒情	耳·腦佳眞氣 肺·胃腕氣	外感腦佳眞病論 內觸胃腕病論
太陽人	喜性 樂情	鼻·腰脊氣 肝·小腸氣	外感腰脊病論 內觸小腸病論

② 太陽人과 太陰人은 上焦-中下焦 臟局 사이에서 氣液을 呼吸하는 陽溫之氣-陰涼之氣의 對立的 관계로, 少陽人과 少陰人은 中上焦-下焦 臟局 사이에서 水穀을 出納하는 陽熱之氣-陰寒之氣의 對立的인 관계로 각 체질의 일차적인 病理를 설명하였다.

또 이러한 構圖에서 偏小한 臟局을 病理解釋과 治療의 中心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臟局의 對立的인 關係에서 偏小한 臟局이 주관하는 寒熱溫涼之氣 中의 一氣가 먼저 不足하므로, 상응하는 偏大한 臟局이 주관하는 寒熱溫涼之氣 中의 一氣가 상대적으로 過盛해져서 病理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¹²⁾

예를 들어 肺大肝小한 太陽人은 偏小한 臟局에 속하는 小腸의 氣液을 吸入하는 陰涼之氣가 먼저 不足해지면, 상대적으로 偏

11) 甲午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 10.
 “太陽人, 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 …(中略)…然則少陽人, 怒性傷口膀胱氣; 哀情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傷目腎氣; 喜情傷脾胃氣, 太陰人, 喜性傷耳腦佳眞氣; 樂情傷肺胃腕氣乎?”
 12) 上揭書, 8.
 “水穀納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胃者, 出納水穀之府庫, 而送爲精澆者也. 氣液呼於胃腕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 而送爲進退者也. 是故, 少陽人, 大腸出水穀陰寒之氣不足, 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必盛也. 太陽人, 小腸吸氣液陰涼之氣不足, 則胃腕呼氣液陽溫之氣必盛也. 胃腕陽溫之氣太盛, 則胃腕血液乾槁, 其勢固然也. 然非但乾槁而然也, 上呼之氣太過, 而中吸之氣太不支, 故食物不吸入, 而還呼出也.”

대한 臟局에 속하는 胃脘의 氣液을 納積하는 陽溫之氣가 過盛해진 결과로 嘔膈反胃의 病理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¹³⁾

表 2. 呼吸出納의 관점에서 본 各 體質의 病里

四象人	偏小之臟	偏大之臟	不足之氣	過盛之氣
少陰人	脾·胃	腎·大腸	陽熱之氣	陰寒之氣
少陽人	腎·大腸	脾·胃	陰寒之氣	陽熱之氣
太陰人	肺·胃脘	肝·小腸	陽溫之氣	陰清之氣
太陽人	肝·小腸	肺·胃脘	陰清之氣	陽溫之氣

③ 四焦의 各 臟局을 구성하는 器官들을 다시 前後 內外로 나누고, 전면부의 胃脘·胃·小腸·大腸과 후면부의 腦·脊·背·腰·腎·膀胱에 각각 表裏의 代表性을 부여하여 各 體質病證의 病理를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¹⁴⁾

내용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少陰人外感病論」을 예로 간략히 살펴보면, <圖 1>과 같이 內外(前後)·上下의 관계에 따라 胃·膀胱과 大腸·膀胱을 배치하고, 穀氣·陽氣와 陽熱之氣·陰寒之氣의 升降失常에 의하여 少陰人 表病(外感病)의 各 病證이 발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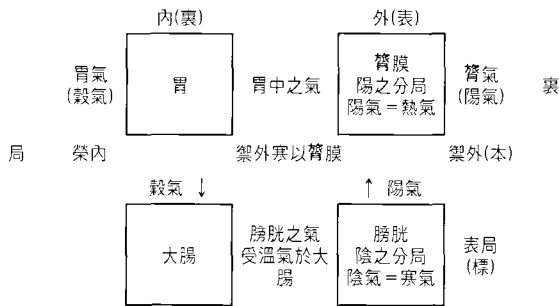


圖 1. 少陰人 病機의 基本構造¹⁷⁾

13) 註11의 原文에서는 內外表裏를 구성하는 臟局의 器官들 가운데 內裏에 속하는 臟과 腑만을 거론하고 腦·脊·背·腰·腎·膀胱이나 耳·目·鼻·口 등 外表에 속하는 器官들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各 體質의 內腑裏病의 病理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에 거론할 保命之主가 各 體質의 表裏病에 共通으로 적용되고, 해당 原文에서 內外表裏의 臟局器官을 모두 언급한 것으로 보아 外感表病과 內腑裏病에 共通으로 적용되는 病理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甲午本의 太陰人과 太陽人 「病證論」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病理 설명이 없다. 그러나 保命之主에 관한 論說이나, 「病證論」의 篇名과 「太陽人內腑小腸病論」 8조에서 小腸陰涼之氣不足 → 胃脘溫陽之氣太盛 → 胃脘血液乾枯 → 嘔膈反胃證로 嘔膈反胃證의 病理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적으로 胃脘·小腸 腦·脊·背·腰와 陽溫之氣·陰涼之氣의 구도에서 病理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15) 甲午本 少陰人外感病論. 32. "膀胱者, 陰之分局也. 陰氣者, 寒氣也, 膈膜者, 陽之分局也. 陽氣者, 熱氣也. 膀胱表局外禦之, 陽不足而正邪相爭於膀胱之表局者, 以正犯邪, 故惡寒也. 惡寒不作者, 正不退邪也. 正不退邪者, 太陽力屈之病也. 膈膜裏局內守之, 陽不足而正邪相爭於膈膜之裏局者, 以邪犯正, 故煩熱也. 煩熱虛張者, 邪益逼正也. 邪益逼正者, 卽陽明勢孤之病也."

16) 上揭書. 55. "膈氣衛外, 膈氣者陽氣也, 胃氣營內, 胃氣者穀氣也. 陽氣自膀胱而上於膈膜也. 穀氣自胃中而下達於大腸也. 膀胱之氣受溫氣於大腸, 胃中之氣禦外寒以膈膜. 少陰人, 傷寒病, 正邪相爭累日不決, 則陽氣之上衛於膈膜者窒滯, 故胃氣之外以禦寒氣, 而中以所自立者亦羸弱也. 胃氣單弱, 則穀氣之下達於大腸者亦微薄, 故膀胱之受溫氣於大腸者又微薄也."

17)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病證論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3(2): 51, 2001.

④ 各 體質의 病證을 아래와 같이 '表裏之表裏'라는 基準에서 넷으로 분류하였다.

表 3. 各 體質 病證의 表裏之表裏 分類

四象人	表裏之表裏	體質病證
少陰人	表之表病	太陽病
	表之裏病	陽明病
	裏之表病	太陰病
	裏之裏病	少陰病
少陽人	表之表病	浮腫, 喘促, 結胸, 寒熱往來, 胸脇滿, 發熱惡寒, 身體痛
	表之裏病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
	裏之表病	消渴, 癰疽
	裏之裏病	陰虛午熱, 傷寒謔語
太陰人	表之表病	惡寒發熱, 長感病
	表之裏病	陽毒燥溢
	裏之表病	腹痛自利, 食滯痞滿, 痢疾, 浮腫, 有腹痛中風
	裏之裏病	虛勞夢遺, 無腹痛中風
太陽人	表病	解僂證
	裏病	噎膈證

⑤ 이상의 病理에 대응하는 治療의 大綱으로 偏小한 臟局의 回復을 강조한 '保命之主'를 내세웠다.¹⁸⁾ 이는 甲午本이 邪氣中心이 아닌 正氣中心의 病證論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⁹⁾

2) 辛丑本 病證論의 特徵

辛丑本은 甲午本중에서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論」을 주로 改抄한 것이다. 甲午本을 완성한 이후 6년간의 臨床經驗을 통해서 改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더 實證的이고 豊富해졌다.

한편 太陽人 「病證論」은 辛丑本에서도 변화가 없다. 이것은 이른바 "經驗未遍 而精力已憊"하여 미처 改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太陽人論의 表裏病理說을 辛丑本 분석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東武는 甲午本을 改抄하는 과정에서 '表裏病理'에 대한 道식적인 해석을 배제하였다. 또 '寒熱病理'에 대한 病理認識을 심화시키고, '虛實病理'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認識을 한 것으로 보인다. 辛丑本의 전반적인 內容變化를 甲午本과 비교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病證論」의 篇名을 개정하였다. <表 4>와 같이 表裏와 寒熱을 결합시키고, 病理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臟局을 중심으로 篇名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少陰人腎受熱表熱病」은 "少陰人의 腎이 熱을

18)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 "少陰人, 以陽緩之氣爲保命之主, 故膈胃爲本, 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 而膈胃爲標也." 上揭書. 太陰人內腑胃脘病論. 8.

"太陰人, 以呼散之氣爲保命之主, 故腦脊胃脘爲本, 而腰背小腸爲標. 太陽人, 以吸來之氣爲保命之主, 故腰背小腸爲本, 而腦脊胃脘爲標."

19)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四象體質醫學會誌, 4(1): 41, 2002.

받아 같이 熱한 病을 論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腎'은 病을 받는 臟腑나 病變이 주로 발현되는 部位를 지칭하는 概念으로 四焦論의 部位를 의미한다. '受熱'은 病因의 特性을 의미하며, '表熱病'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病證의 特徵을 요약한 것이라 하겠다.²⁰⁾

表 4.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 篇名の 變化

	甲午本	辛丑本
少陰人	外感腎病論 內膈胃病論 腎胃病篇尾泛論	腎受熱表熱病論 胃受寒裏寒病論 泛論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內膈大腸病論 膀胱大腸病篇尾泛論	脾受寒表寒病論 胃受熱裏熱病論 泛論
太陰人	外感腦佳頁病論 內膈胃病論 (x)	胃脘受寒表寒病論 肝受熱裏熱病論 泛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內膈小腸病論 (x)	外感腰脊病論 內膈小腸病論 (x)

② 病理解釋의 측면에서도 臟局의 表裏 설정을 甲午本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肺·脾·肝·腎과 胃脘·胃·小腸·大腸과 腦佳頁·背脊·腰脊·膀胱 등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病證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少陰人의 下焦血證과 少陽人의 少陽傷風證에서는 腎·脾·膀胱·背脊를 表裏·上下 관계로 설정하였으나,²¹⁾ 少陰人의 亡陽證과 少陽人 亡陰證은 胸膈·大腸·膀胱·背脊를 內外·表裏·上下 관계로 설정하여 病理를 설명하고 있다.²²⁾

또 篇名の 改定 意義에서 보여지듯이, 偏小와 偏대한 臟局을 같이 고려하여 病證의 발현특징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寒熱病理'에 대한 認識을 심화시켜 表裏와 寒熱이 결합된 한층 발전한 體質病理觀을 제시하고 있다.

③ 甲午本에 수록되었던 治療大綱으로서의 保命之主에 관한 條文을 삭제하고, 보다 구체화된 治療原則을 개개의 病證藥理에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少陰人의 下焦血證에는 "益氣而升陽"²³⁾시켜야 하며, 太陰證은 "溫胃而降陰"²⁴⁾하고 少陰證은 "健脾而降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少陽人의 少陽傷風證은 "清裏熱而降表陰"²⁵⁾시키고, 消渴證에는 "清陽上達"²⁶⁾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20)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四象體質醫學會誌, 6(1):86, 1994.
 21) 辛丑本,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 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卽少陽人, 腎局陰氣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脊間, 膠固滯滯之病也."
 22)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32.
 "(少陰人亡陽證)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通膀胱, 故背表煩熱而汗出也."
 "(少陽人亡陰證)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通膈裏, 故腸胃畏寒而泄下也."
 23) 上揭書,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12.
 24) 上揭書,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7-11.
 25)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8.
 26) 上揭書,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17.

④ 病證의 表裏寒熱虛實과 진행과정에 따라 보다 엄밀하게 藥方들을 分類 改定 追加하였다. 예를 들어 辛丑本에서는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甲午本에서 有汗者에게 쓰던 川芎桂枝湯을 變方하여 無汗者의 處方으로 재설정하고, 黃芪蘇葉湯을 黃芪桂枝湯으로 變方하였다.²⁷⁾ 또 亡陽證을 險證으로 중시하여 太陽表證의 有汗者를 이미 亡陽初證으로 보았으며, 病證의 初中末證에 따라 자세한 처방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²⁸⁾

또 太陰人 長感病의 處方으로 甲午本에서는 葛根解肌湯²⁹⁾을 들었으나, 辛丑本에서는 寒多熱少湯³⁰⁾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長感病에 대한 病理認識이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에 서술할 素證(素病)의 개념과 관련하여 處方의 適應證을 再認識한 것으로 보인다. 즉 甲午本에서는 葛根解肌湯을 表裏의 분류에 따라 단순히 表病證의 處方으로 보았으나, 辛丑本에서는 素證(素病)의 表裏寒熱 분류에 따라 裏熱證³¹⁾인 사람의 陽明表病證³²⁾의 處方으로 보았다. 또 이러한 認識의 변화 때문에 甲午本의 太陰人 「表病論」 23條文 中の 14條文(10~23條)을 辛丑本에서는 「裏病論」으로 이동시키거나 삭제하게 되었다.

⑤ 「病證論」의 내용을 보다 실증적이고 풍부하게 해주는 많은 醫案들이 추가하였다. 醫案들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醫案分析 項에서 論하고자 한다.

이상의 주요한 內容變化들은 東武가 甲午本을 완성한 이후 새롭게 인식한 '素證(素病)'의 概念과 대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素證(素病)의 概念

1) 素證(素病)의 概念에 대한 既往의 研究

27) 辛丑本에서는 芎歸香蘇散에 쓰이는 川芎 蒼朮 香附子 蘇葉 陳皮 등을 주로 鬱狂無汗證의 本草들로 보고 甲午本의 川芎桂枝湯과 黃芪蘇葉湯을 辛丑本의 川芎桂枝湯과 黃芪桂枝湯으로 變方한 것으로 보인다.
 ○ 甲午本
 川芎桂枝湯: 桂枝 3錢, 白芍藥 2錢, 川芎 紫蘇葉 炙甘草 各1錢, 生薑 3片, 大棗 2枚
 黃芪蘇葉湯: 黃芪 4錢, 桂枝 白芍藥 各2錢, 川芎 當歸 紫蘇葉 炙甘草 各1錢, 生薑 3片, 大棗 2枚
 ○ 辛丑本
 川芎桂枝湯: 桂枝 各3錢, 白芍藥 2錢, 川芎 蒼朮 陳皮 炙甘草 各1錢, 薑 3片, 大棗 2枚
 黃芪桂枝湯: 桂枝 各3錢, 白芍藥 黃芪 各2錢, 白何首烏 當歸 炙甘草 各1錢, 薑 3片, 大棗 2枚
 28)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36.
 "少陰人亡陽病, 少陽人亡陰病, 正邪陰陽不敵而相格, 故初證已爲險證, 繼而因爲危證矣."
 辛丑本,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5.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芪桂枝湯補中益氣湯·升陽益氣湯, 三日連服, 而汗不止, 病不愈, 則當用桂枝付子湯·人蔘桂枝付子湯·升陽益氣付子湯."
 29) 甲午本, 太陰人外感腦佳頁病論, 9.
 "今考更定, 太陰人病, …(中略)…厥五日而無汗者, 危證也, 當用葛根解肌湯, 調下熊膽三分, 又連用葛根解肌湯二三服."
 30) 辛丑本,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2-9.
 "論曰: 太陰人病, …(中略)…厥五日而無汗者, 險證也, 當用熊膽散, 或寒多熱少湯加蜻蛉五七九個."
 31)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12.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裡證也, 當用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
 32)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3.
 "銀信曰: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이수경 등³³⁾은 “각 體質의 素證은 病證發顯에 차이를 유발하여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출발점이 된다.”하여 素證을 體質證과 體質病證이 발현되기 이전의 어떤 生理的 證候로 보았다.

류주열³⁴⁾은 “素病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素證은 寒熱에 한정된 개념이다. …(中略)…素證은 평상시에 원래 그 사람이 寒證 素質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熱證 素質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를 말하는 것이고…(中略)…素病에는 既往歷의 의미도 들어간다.”고 하여 素證은 病證의 寒熱을 유발하는 일종의 素質로, 素病은 素證과 既往歷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素因으로 보았다.

조황성³⁵⁾은 素證은 “平常時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로 疾病에 대한 抵抗力, 즉 正氣의 상태가 나타나는 證候를 말한다.…(中略)…素證의 상태는 疾病의 樣相과 豫後를 결정하는 단서가 된다. 즉 現證은 대내외의 자극(邪氣)의 강약과 이에 대응하는 素證의 반응여하에 따라 差等的으로 발현된다.”하여 正氣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素證의 概念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素證(素病)은 특정한 病證이 발생하기 전에 개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素質로, 病證에 대한 感受性和 病證의 樣相 및 豫後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素'라고 일차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素證(素病)의 用例

素證(素病)은 甲午本에는 없고 辛丑本에서만 발견되는 用語이다. 辛丑本에서 '素病'은 4개 條文에서 9회, '素證'은 3개 條文에서 4회 사용되었다. 또 少陰人과 少陽人 「病證論」에서는 새로 추가된 醫案에서만 素證(素病)이라는 용어가 한 차례씩 사용된 반면에, 전반적인 내용이 改抄된 太陰人 「病證論」에서는 5개 條文에서 11회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또 “平居裏煩汗多者” “素有怔忡” “稟賦素弱”과 같은 앞에서 定義한 素證(素病)의 一次的 定義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條文들이 辛丑本에서 다수 발견된다.³⁶⁾

① 素病(素證)이라는 용어를 直接的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條文을 辛丑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素證에 관한 條文

a. “嘗治, 少陰人十一歲兒, 汗多亡陽病. 此兒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 而每飯時汗流滿矣.…”³⁷⁾

b. “其後, 又有一少陽人, 十七歲女兒. 素證: 間有淳氣, 食滯腹痛矣.…”³⁸⁾

c.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瘧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無汗·氣短·結咳矣.…(中略)…素證亦減而.”³⁹⁾

ii. 素病에 관한 條文

33)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연구. 四象體質醫學會誌, 11(2):16, 1999.
 34) 류주열, 東醫四象醫學講座. 大成文化社, p 178, 1998.
 35) 조황성, 四象醫學의 原理와 方劑. 集文堂, pp 143-144, 2003.
 36) 甲午本에서 素證(素病)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굳이 찾아보면 “少陽人에서 稟賦가 軟弱한 사람은 陰虛惡熱의 病證이 잘 오고, 剛急한 사람은 中風 吐血 嘔吐 腹痛 痞滿의 病證이 잘 온다. (少陽人, 稟性軟弱者, 多有陰虛午熱之證; 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14>”는 條文을 들 수가 있으며,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37) 辛丑本.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2.
 38)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44.
 39) 上揭書.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2-10.

a.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瘧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無汗·氣短·結咳矣.…(中略)…素病亦完.”⁴⁰⁾

b.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裡虛實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疫,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疫, 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疫, 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疫, 則險證也.”⁴¹⁾

c. “有一太陰人, 素病: 咽乾乾燥, 而面色青白, 表寒或泄. 蓋咽乾乾燥者, 肝熱也. 面色青白, 表寒或泄者, 胃脘寒也. 此病表裏俱病, 素病之太重者也.…”⁴²⁾

d. “嘗治, 太陰人, 肝熱熱證瘧病. 有一太陰人, 素病: 數年來, 眼病時作時止矣.…”⁴³⁾

② 素證(素病)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條文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a. “少陰人, 平居裡煩汗多者, 得病則必成亡陽也. 少陽人, 平居表寒下多者, 得病則必成亡陰也.…”⁴⁴⁾

b. “論曰: 太陰人, 面色青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肝熱肺燥而然也.”⁴⁵⁾

c. “凡男子方當壯年, 而其氣猶怯, 此乃稟賦素弱, 非虛而然.”⁴⁶⁾

3) 素證(素病)과 관련한 醫案 分析

辛丑本에 수록된 東武의 治驗例과 經驗例은 모두 44례이며,⁴⁷⁾ 이중에 醫案으로서의 體系를 비교적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治驗例⁴⁸⁾은 少陰人 6例, 少陽人 7例, 太陰人 6例로 모두 19례이다. 이 醫案들을 시기적으로 甲午本 이전의 醫案과 이후의 醫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甲午本 이전의 醫案은 6例(少陰人 4例, 少陽人 2例)이고, 甲午本 이후의 醫案은 13례이다.

이들 醫案을 시기에 따라 비교해 보면 病證理論이 발전해온 과정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醫案들을 각 체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⁹⁾

① 少陰人 小兒의 亡陽病과 下利靑水病 醫案
 <醫案 1> 黃芪桂枝附子湯 醫案⁵⁰⁾

“嘗治, 少陰人十一歲兒, 汗多亡陽病. 此兒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 而每飯時汗流滿面矣. 忽一日, 頭痛, 發熱, 汗自出, 大便秘燥. 以此兒素證泄瀉爲憂, 故頭痛·身熱·便秘·汗出之熱證, 以其反於泄瀉寒證, 而曾不關心, 尋常治之. 以黃芪·桂枝·白芍藥等屬發表矣. 至于四五日, 頭痛發熱不愈. 六日平明, 察其證候, 則大便燥結已四五日, 小便赤澀二三匙, 而一晝夜間, 小便度數不過二三, 不惡寒而發熱, 汗出度數, 則一晝夜間二三四次不均, 而人中則

40) 上揭書.
 41) 上揭書. 12-12.
 42) 上揭書. 12-13.
 43)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13.
 44)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34.
 45)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18.
 46)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27.
 47) 原文에서 ‘嘗治’ 혹은 ‘嘗見’이라는 語頭가 붙어있는 條文들을 합한 것이다.
 48) 박운성 박원환 김준기 최달영.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p 1, 2004.
 “醫案이란 醫師가 患者의 症狀 病因 脈狀 舌狀 病機 診斷 轉歸 治則 注意事項 등을 개괄적이고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또 분석하며, 아울러 사용한 藥物의 名稱 劑量 炮制方法 服用法 등의 治療 處置를 文字로 기록한 醫學 資料를 의미한다.”
 49) 素證(素病) 概念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 주는 同一人 또는 同一病에 대한 서로 다른 醫案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50) 辛丑本.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23.

或有時有汗, 或有時無汗, 汗流滿面滿體, 其證可惡. 始覺汗多亡陽證候, 真是危證也. 急用巴豆一粒, 仍煎黃芪桂枝附子湯用附子一錢, 連服二貼以壓之. 至于未刻, 大便通, 小便稍清而稍多…(中略)…急用巴豆一粒, 仍煎人蔘桂枝附子湯用人蔘五錢附子二錢, 連二貼以壓之…(中略)…自得病初, 至於病解, 前後一月餘, 用附子凡八兩矣.”

<醫案 2> 附子理中湯 醫案⁵¹⁾

“嘗見, 少陰人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一二日, 則必腹痛泄瀉一二日. 用白何烏理中湯二三四貼 或甚則附子理中湯一二貼則泄瀉必愈矣…(中略)…此兒十歲冬十二月, 有下利青水病, 十一歲春二月, 又得亡陽病.”

○ 分析 : <醫案 2>의 附子理中湯 醫案 末尾에 “이 아이는 10歲 되던 해 겨울에 下利青水病을 앓았고, 11歲 되던 해 2月 봄에 또 亡陽病을 앓았다.”고 하였으며, 또 두 醫案에 서술된 “때때로 근심 걱정을 하면 泄瀉를 하였다.”는 같은 素證의 표현으로 봐서 <醫案 1>과 <醫案 2>가 同一人에 대한 다른 두 醫案임을 알 수 있다.

이 病兒는 본래 勞心 勞思 思慮耗氣하는 성격으로, 憂愁一二日 하면 반드시 腹痛泄瀉一二日 하는 ‘裏寒證(太陰證)’의 素證이 있어서, 發病 때마다 白何烏理中湯 혹은 附子理中湯으로 치료해 왔다. 또 食事 때마다 汗流滿面하는 素證도 있었다.

갑자기 11歲 되던 해 2월에 頭痛 發熱 汗自出 大便秘燥하는 外感表證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病兒의 素證이 본래 ‘寒證’임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단지 現證으로 나타난 ‘熱證’만 보고 黃芪桂枝 芍藥(黃芪桂枝湯類)등⁵²⁾으로 심상히 發表시킨 결과, 6일째 되던 날 마침내 陽明病의 發熱汗多 小便赤澀하는 ‘亡陽之末證’의 變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臨床에서 드러난 現證보다는 평소의 素證(素病)을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例證하고 있다. 한편 “現證인 頭痛 身熱 便秘 汗出의 ‘熱證’은 素證인 泄瀉의 ‘寒證’과 반대가 되는 것이었다.”는 句節을 고려할 때 素證에 八綱의 寒熱概念이 內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少陽人 動風證 醫案 4例

<醫案 3> 白虎湯 醫案⁵³⁾

“嘗治, 少陽人, 傷寒發狂譫語證. 時則乙亥年清明節候也. 少陽人一人得傷寒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但知少陽人應用藥, 六味湯最好之理, 故不敢用他藥, 而祇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即時頓定…(中略)…病人發狂連三日, 午後喘促又發, 又用六味湯, 喘促略不少定, 有頃, 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而始知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以竹管吹入病人鼻中下咽…(中略)…自未申時, 至亥子時, 凡用石膏八兩…(中略)…翌日平明, 病人又服白虎湯一貼. 日出後, 滑便一次, 而病快愈…(中略)…伊時, 未知大便驗法, 故不察大便之秘閉幾日. 然想必此病人, 先自表寒病得病, 後有大便秘閉, 而發此證矣.”

<醫案 4> 石膏滑石方 醫案⁵⁴⁾

51) 上揭書.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7-39.

52) 上揭書.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藭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53)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41.

“又有少陽人一人, 得傷寒熱多寒少之病. 有人教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余教服白虎湯連三貼, 而其人只服半貼. 數日後, 譫語而病重…(中略)…則病人外證昏愢, 已有動風之漸, 而耳聾, 譫語, 舌上白苔. 藥囊祇有石膏一斤滑石一兩, 而無他藥, 故急煎石膏一兩滑石一錢, 頓服. 而其翌日, 又服石膏一兩滑石一錢, 此兩日, 則大便皆不過一晝夜…(中略)…前後用石膏凡十四兩. 而未境發狂數日語韻宏壯而病愈. 數月然後 方出門庭.”

<醫案 5> 地黃白虎湯 醫案⁵⁵⁾

“又有少陽人一人, 初得頭痛身熱, 表寒病八九日. 其間, 用黃連·瓜萸·羌活·防風等屬, 病勢少愈, 而永不快祛矣. 仍爲發狂三日, 病家以尋常例證視之, 而祇用黃連·瓜萸等屬. 又譫語數日, 始用地黃白虎湯一貼. 其翌日, 午後動風, 急煎地黃白虎湯, 連三貼救急, 而艱辛下咽. 其翌日, 則白虎湯加石膏一兩, 午前用之, 以備動風, 而連三日用之. 病人自起坐立, 能大小便, 病勢比前, 快蘇快壯矣. 不幸, 病加於少愈, 慮不周於完治, 此人竟不救. 恨則午前祇用白虎湯二貼, 以備動風, 而午後全不用藥, 以繼之也.”

<醫案 6> 荊防地黃湯 醫案⁵⁶⁾

“又有一少陽人, 十七歲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 頭痛, 寒熱, 食滯. 有醫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 仍爲泄瀉, 日數十行, 十餘日不止, 引飲不眠, 間有譫語證. 時則己亥年冬十一月二十三日也. 卽夜, 用生地黃·石膏各六兩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減半. 其翌日, 用荊防地黃湯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二貼藥力, 十倍於知母白虎湯可知矣…(中略)…至于十二月二十三日, 始得免危, 能起立房室中. 一朔內, 凡用石膏四十五兩…(中略)…其後, 又連用荊防地黃湯加石膏一錢, 至于新年三月.”

○ 分析 : 辛丑本 「脾受寒表寒病論」에 수록된 4例의 少陽人의 動風證 醫案들을 분석해보면 각각 성립된 시기에 따라 病證의 表現과 用藥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體質病證論이 발전해온 과정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 甲午本 이후의 醫案들의 특징은 ‘素證(素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거나, ‘表寒病’ ‘裏熱病’과 같이 表裏와 寒熱을 결합하여 病證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醫案 3>과 <醫案 4>는 甲午本에 먼저 수록되었던 醫案이다.⁵⁷⁾ <醫案 3>의 白虎湯 醫案은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최초의 醫案으로 乙亥年 清明節(1875年, 東武39歲)이라는 年支와 節氣가 기록되어 있다. 改抄하면서 末尾에 “先自表寒病得病後”라는 句節을 補入하였다. 따라서 表寒病 裏熱病 등의 辨證方式은 甲午本 이후에 도입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⁵⁸⁾ 한편 “이 때는 경

54) 上揭書. 9-42

55) 上揭書. 9-43

56) 上揭書. 9-44

57) 두 醫案은 甲午本에서는 본래 「內觸大腸病論」의 胸膈熱證에 수록되어 있던 것을 辛丑本에서는 「脾受寒表寒病論」의 少陽病 壞證 아래로 옮겼다. 이것은 甲午本에서는 動風證의 大便秘閉를 大腸局과 관련된 裏病으로 보았으나(惡寒者, 膀胱病初證也. 大便過一晝一夜有餘者, 大腸病初證也.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 9>), 辛丑本에서는 胃受熱한 결과가 아니라 頭痛 寒熱의 表病을 誤治한 壞證(張仲景曰: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中略)…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 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39>))으로 보았기 때문에 편의상 모두 「脾受寒表寒病論」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58) 甲午本에서는 病證의 特性을 ‘寒多熱少之病’ ‘熱多寒少之病’과 같이 寒

힘이 미숙하여 少陽人藥 중에 六味地黃湯이 가장 좋은 줄로 알았다.”는 東武의 고백을 고려해보면, 이 때 이미 體質辨別의 方法論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藥理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醫案 4>의 石膏滑石方 醫案은 傷寒病의 熱多寒少之病⁵⁹⁾에 少陰人 要藥인 堆肉湯⁶⁰⁾을 誤服하여 陽毒發斑病이 發生하고, 다시 치료시기를 놓쳐서 動風證에 이른 것을 치료한 醫案이다. 당시에 藥劑가 부족하여 石膏1兩 滑石1錢의 處方으로 動風의 危證을 치료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藥理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醫案 5>와 <醫案 6>은 甲午本 이후에 경험된 醫案이다. <醫案5>의 地黃白虎湯 醫案은 “表寒病八九日”이라는 句節로 病證을 요약하고 있다. 病家에서 頭痛 身熱의 表寒病을 잘 치료하지 못하여 動風證을 발생시켰고, 다시 東武가 地黃白虎湯을 썼으나 治療를 周密하게 하지 못해서 死亡한 경우이다.

<醫案 6>의 荊防地黃湯加石膏方 醫案은 己亥年(1899年, 東武63歲) 11月 23日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動風證 醫案들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醫案이다. “가끔 팔곡질을 하고 食滯腹痛이 있었다.”는 素證이 기록되어있는데, 發病후에 泄瀉證⁶¹⁾이 나타나는 것과 荊防地黃湯加味方⁶²⁾으로 治療한 것으로 봐서, 素證이 ‘表寒證’인 사람의 治驗例임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의 少陽人 醫案들은 素證(素病)이 甲午本 이후에 형성된 概念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醫案의 성립 시기에 따른 病證 표현 방식의 변화와 補入한 구절과 編次의 수정내용 등은 素證(素病)과 病證의 表裏寒熱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③ 太陰人 溫病 醫案 4例

<醫案 7> 太陰調胃湯 醫案⁶³⁾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瘧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無汗·氣短·結咳矣. 忽焉又添出一證, 泄瀉數日不止, 卽表病之重者也. 用太陰調胃湯加枳椇根皮一錢, 日再服十日, 泄瀉方止. 連用三十日, 每日流汗滿面, 素證亦減. 而忽其家五六人, 一時瘟疫, 此人緣於救病, 數日不服藥矣. 此人又染瘧病瘧證, 粥食無味, 全不入口. 仍以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各一錢, 連用十日, 汗流滿面, 疫氣少減, 而有二日大便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五日, 而五日內粥食大倍, 疫氣大減而病解. 又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 四十日調理, 疫氣既減, 素病亦完.”

<醫案 8> 寒多熱少湯 醫案⁶⁴⁾

“有一太陰人, 素病: 咽乾乾燥 而面色青白 表寒或泄. 蓋咽乾乾燥者, 肝熱也. 面色青白, 表寒或泄者, 胃脘寒也. 此病表裏俱病, 素病之太重者也. 此人得瘧病, 其證自始發日, 至于病解二十日, 大

便初滑或泄, 中滑未乾, 每日二三四次, 無日不通. 初用寒多熱少湯, 病解後, 用調理肺元湯, 四十日調理, 僅僅養生…”

<醫案 9> 熱多寒少湯 醫案⁶⁵⁾

“嘗治, 太陰人, 肝熱熱證瘧病. 有一太陰人, 素病: 數年來, 眼病時作時止矣. 此人得瘧病, 自始發日, 用熱多寒少湯, 三四五日, 大便或滑或泄. 至六日, 有大便一日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連三日, 粥食大倍. 又用三日, 疫氣大減. 病解後, 復用熱多寒少湯, 大便燥澀, 則加大黃一錢, 滑泄太多, 則加大黃. 如此調理二十日, 其人完健.”

<醫案 10> 葛根承氣湯 醫案⁶⁶⁾

“一太陰人十歲兒, 得裏熱瘧病. 粥食全不入口, 藥亦不入口, 壯熱癩癩, 有時飲冷水. 至于十一日, 則大便不通已四日矣. 惟怯語, 日有百蟲滿室, 又有鼠入懷云, 奔遑匍匐, 驚呼啼泣, 有時熱極生風, 兩手厥冷, 兩膝伸而不屈. 急用葛根承氣湯, 不憚啼泣, 強灌口中. 卽日, 粥食大倍, 疫氣大解, 倖而得生. 此病始發四五日, 飲食起居如常, 無異平人矣. 未境, 反爲重證, 十七日而病解.”

○ 分析: 溫病에 관한 4例의 太陰人 醫案은 모두 辛丑本에서 추가된 것이다. 다른 體質의 「病證論」과 비교해서 太陰人論에서 만 특이하게 溫病을 직접적으로 論하고 醫案을 수록하였다.⁶⁷⁾

太陰人論에서는 “素病의 寒熱 輕重에 따라 溫病에 걸렸을 때 病證의 寒熱 重險이 결정된다.”⁶⁸⁾고 한 바와 같이 素證(素病)으로 病變의 所在와 病證의 寒熱 輕重을 명확히 辨證하여 치료하고 있다.

<醫案 7>의 太陰調胃湯 醫案은 평소에 怔忡 無汗 氣短 結咳의 素證(素病)을 가지고 있었던 病人에게 갑자기 ‘表寒證’ 泄瀉⁶⁹⁾가 겹쳐서 表病의 重證이 되었고, 泄瀉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시 溫病에 걸려서 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方으로 치료한 예이다. 이 醫案에는 東武가 病人의 素質을 표현한 주요 用語인 ‘素有’ ‘素證’ ‘素病’이라는 단어가 모두 나오는데, 原文을 분석해보면 서로 의미상 차별이 없이 모두 ‘怔忡 無汗 氣短 結咳’의 症狀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醫案 8>의 寒多熱少湯 醫案에서는 “素病으로 咽乾이 乾燥하고 面色이 清白하며 表寒하여 或泄하는 太陰人 한 사람이 있었다. 대저 咽乾이 乾燥한 것은 肝熱證이요, 面色이 清白하며 表寒하여 或泄하는 것은 胃脘寒證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表裏에 모두 病이 있는 것이니 ‘素病’이 아주 重한 사람이다.” 하여 素證(素病)의 表裏寒熱의 樣相이 한 사람 내에서 排他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複合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만큼 重證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醫案 8>이 胃脘寒證과 肝熱證이 겹친 表裏同病 寒熱俱病이나 “面色清白者 多無燥證”의 원칙에서 볼 때 素證 중 表寒證(胃脘寒證)이 더 근본적이므로 寒多熱少湯으로 치

熱의 多少로서만 표현하였는데, 辛丑本에 와서는 이를 ‘表寒病’ ‘裏熱病’과 같이 表裏와 寒熱을 결합시켜서 표현하였다.
59) <醫案 4>는 다른 세 醫案들과 달리 본래 ‘熱多寒少’한 「胃受熱裏熱病」의 胸膈熱證 太陽病證에서 진행된 ‘表熱證’이다.
60) 박인상. 東醫四象要訣. p 63, 1991.
61) 辛丑本.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9. “少陽人, 胃受熱, 則大便燥也; 脾受寒, 則泄瀉也.”
62) 上揭書.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22. “靈龍山老人論曰: 少陽人, 身熱, 頭痛, 泄瀉, 當用筲苈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 腹痛, 泄瀉, 當用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
63) 上揭書.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2-10.
64) 上揭書.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2-13.

65)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13.
66) 上揭書.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13-15.
67) 그 理由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 다만 病勢가 극렬하고 病證의 변화가 신속한 太陰人 溫病에 대한 경험이 素證(素病) 概念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68) 辛丑本.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12-12. “大凡瘧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裡虛實可知已. 素病寒者, 得瘧病,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瘧病, 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瘧病, 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瘧病, 則險證也.”
69) 上揭書. 太陰人泛論. 14-2.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太陰調胃湯.”

료하게 되었다.

<醫案 9>의 熱多寒少湯 醫案과 <醫案 10>의 葛根承氣湯 醫案은 「肝受熱裏熱病」의 醫案들로서 <醫案 9>는 熱證인 眼病이 素病이고, <醫案 10>에서는 素證(素病)을 생략하였으나 面色이나 기타 症狀으로써 素證의 寒熱을 파악하였으므로 「裏熱瘟病」이라 하였을 것이다.

이상의 太陰人 醫案들은 素證(素病)의 表裏寒熱이 胃脘寒證 肝熱證이라는 病證의 表裏寒熱을 결정하고, 素證(素病)의 表裏寒熱 樣相은 한 사람 내에서 排他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複合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찰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을 비교 분석해 보면 體質病證論은 어느 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臨床經驗의 축적과 病理認識의 심화에 따라 계속 발전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甲午本에서 東武는 특유의 「四象構造論」을 도입하여 演繹的인 방법으로 病證을 분류하고 病理를 해석하였다. 특히 「表裏病理」의 규명에 관심을 기울여서 性情의 偏着이 表裏之氣를 손상하는 原因이 되고, 四焦臟局의 상대적 大小關係로 인한 寒熱溫涼之氣의 過不足이 病理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또 偏小한 臟局을 病理와 治療의 中心으로 삼고, 治療의 大綱으로 保命之主를 강조하였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の 연구 성과들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病理를 재해석하였다. 먼저 稟性和 관련지어 性과 情의 偏着이 表氣와 裏氣를 각각 손상시켜 病理를 발생시킨다는 甲午本の 추상적인 病理認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少陰人論의 「腎局陽氣」, 「脾局陽氣」, 「表陽溫氣」, 「裏陰溫氣」, 「大腸寒氣」, 「胃中溫氣」, 「益氣而升陽」, 「溫胃而降陰」 등의 표현과 少陽人論의 「腎局陰氣」, 「脾局陰氣」, 「裏陽清氣」, 「表陰清氣」, 「裡陽升氣」, 「表陰降氣」, 「清裏熱而降表陰」, 「胃局清陽」, 「大腸局清陽」 등의 다양한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辛丑本은 臟局의 상대적 對立關係에 따른 陰陽之氣의 升降失常과 寒熱之氣의 進退消長이 보다 직접적인 動因이 되어 각 病證의 病理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病證論」 篇名の 改定 意義에서도 보여지듯이 甲午本과는 달리 偏小한 臟局과 偏大한 臟局을 함께 고려하여 病理를 해석하였다.

또 이러한 病理認識의 변화를 반영하여 治療大綱으로서의 保命之主를 삭제하고, 「益氣而升陽」, 「溫胃而降陰」, 「清裏熱而降表陰」, 「清陽上達」등과 같이 보다 구체화된 治療原則을 개개의 病證藥理에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辛丑本에서는 위와 같이 「表裏病理」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寒熱病理」와 「虛實病理」에 대한 認識을 심화시켰는데, 그 認識의 중심에 素證(素病)의 概念이 자리하고 있다. 辛丑本에서는 평소 이미 表裏 寒熱 虛實과 같은 보편적인 辨證基準에서의 傾向性을 가지고 있고, 病理化의 方向性도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少陰人으로 「평소 속에 번거롭고 땀이 많은 사람(裏

煩汗多者)이 發病하면 「表熱證」인 亡陽證으로 반드시 진행되고, 少陽人으로 「평소 추위를 타고 泄瀉를 잘하는 사람(表寒下多者)」이 發病하면 반드시 「表寒證」인 亡陰證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太陰人으로 面色이 黃赤黑한 사람은 肝熱肺燥하여 燥證이 많은 「裏熱證」이 되고 面色이 靑白한 사람은 胃脘寒하여 燥證이 적은 「表寒證」이 된다고 하였다.

그 治療에 있어서도 少陰人으로 亡陽證 素質이 있는 사람은 補中益氣湯⁷⁰⁾ 등으로 補陽하고, 少陽人으로 亡陰證 素質이 있는 사람은 荊防地黃湯⁷¹⁾ 등으로 補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太陰人으로 肝熱肺燥한 素質이 있는 사람은 熱多寒少湯 등을 써서 肝燥熱을 瀉하고, 胃脘寒한 素質이 있는 사람은 寒多熱少湯 등을 써서 胃脘의 溫暖之氣를 補하는 등 素證(素病)에 기초하여 藥方을 분류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泄瀉寒證」,⁷²⁾ 「表熱證泄瀉」, 「表寒證泄瀉」,⁷³⁾ 「少陽人裡熱證」, 「太陰人表熱證」,⁷⁴⁾ 「胃熱證」⁷⁵⁾ 등의 表裏 寒熱과 관련한 病證의 표현들도 素證(素病)의 表裏 寒熱에 근거하여 辨證된 것이다. 또 辛丑本에서 篇名을 表裏와 寒熱을 결합하여 改定한 것도 이러한 素證(素病)의 概念에 대한 認識의 일단일 것이다.

辛丑本에서는 주로 素證(素病)의 表裏 寒熱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비하여 「虛實」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疏略한 편이다. 그러므로 東武가 素證(素病)의 表裏 寒熱만 중시하고 虛實의 측면은 경시한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四象醫學과 傳統醫學의 虛實概念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表現方式의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素證(素病)의 虛實概念은 「病證論」속에서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다.

四象醫學에서의 虛實은 正氣虛와 邪氣實이 아니라, 「正氣」의 상대적인 虛와 實」을 의미한다.⁷⁶⁾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輕證 重證 驗證 危證의 순서로 각 體質病證들의 輕重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방법에는 素證(素病)의 虛實概念을 내포하고 있다.

太陰人論에서 「素病이 輕한 사람이 溫病에 걸리면 重證이 되고, 重한 사람이 溫病에 걸리면 驗證이 된다」고 하고, 「대저 咽喉이 乾燥한 것은 肝熱證이요, 面色이 靑白하며 表寒하여 或泄하는 것은 胃脘寒證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表裏가 모두 병든 것

70) 辛丑本. 宋元明少陰人病經驗用要藥. 補中益氣湯方. 「此方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71) 上揭書. 新定少陽人病應用要藥. 荊防地黃湯方. 「荊芥-防風-羌活-獨活 俱是補陰藥. 荊防大清胸膈散風, 羌獨大補膀胱真陰. 無論頭腹痛痞滿世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72) 上揭書.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2.

73) 上揭書. 太陰人泛論. 14-2.

74) 上揭書.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7.

75) 上揭書.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10-9.

76) 곽창규, 손은혜 등. 四象人體質病證證 表病과 裏病의 概念規定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6(1):7, 2004.

77)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9-41. 「少陰人胃家實病, 少陽人結胸病, 正邪陰陽相敵而相格, 故日久而後, 危證始見也. 少陰人亡陽病, 少陽人亡陰病, 正邪陰陽不敵而相格, 故初證已爲陰證. 熱而因爲危證矣.」

78) 東武는 「素病이 寒證이면 病證은 寒證으로, 素病이 熱證이면 病證은 熱證으로, 素病이 輕證이면 病證은 重證으로 素病이 重證이면 病證은 險證으로 發顯된다.」고 하여 溫病에서의 病證 發顯의 規律性을 말하였다. 이러한 規律性은 모든 疾病과 病證으로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니 素病이 아주 重한 사람이다.”라고 하여 素證(素病)의 輕重과 病證의 輕重險危의 상관관계를論했는데, 이때 素證(素病)의 輕重은 正氣의 상대적인 虛實을 반영하고 있다. 또 “少陰人 少陽人의 胃家實病(鬱狂病)과 結胸病(少陽傷風證)은 正氣와 邪氣가 서로 敵手가 되면서 싸우기 때문에 오랜 후에 危證이 나타난다. 亡陽病과 亡陰病은 正氣가 邪氣에 敵手가 되지 못하면서도 싸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險證이 되고 이어서 危證이 된다.”⁷⁷⁾고 하였는데, 이 또한 亡陽病과 亡陰病 素質을 가진 사람이 胃家實病(鬱狂病)과 結胸病(少陽傷風證) 素質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正氣가 상대적으로 虛薄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素證(素病)은 病證이 발현되기 전에 個體에 이미 內在하는 일종의 素質로서, 體質病證을 포함한 제반 病證들의 발생을 誘導하는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 八綱의 表裏寒熱 虛實과 같은 보편적인 辨證方法으로 귀납되는 證候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素證(素病)은 個體에서 발생하는 각종 病證들의 感受性과 發顯樣相을 결정하고, 治療의 과정에서 治法과 豫後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太陰人論의 太陰調胃湯 醫案(醫案7)에는 東武가 病人의 素質을 표현한 주요 用語인 ‘素有’ ‘素證’ ‘素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原文을 분석해보면 서로 의미상 차별이 없이 모두 ‘怔忡 無汗 氣短 結咳’의 증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상으로는 東武가 素證과 素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素證(素病)의 八綱의인 측면은 體質醫學의 범위를 넘어서 證治醫學의 영역에서도 受容되고 啓發될 수 있는 概念으로 생각된다. 病證의 發顯에 관련된 내재적인 規律性⁷⁸⁾에 대한 새로운 認識은 보다 심층적이고 정교한 辨證施治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素證(素病)이 발생되는 生理 病理的인 機轉에 대해서는 辛丑本을 살펴봐도 별다른 言及을 발견할 수 없고, 著者 또한 “思而得之”하기에 力不足한 영역이다. 다만 素證(素病)의 경향성과 발현된 病證의 특성이 일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體質病證의 발현기전으로 論한 각 臟局의 表裏內外를 升降出入하는 陰陽寒熱之氣의 不同한 作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을 病理認識의 變化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認識 變化의 中心으로서 ‘素證

(素病)의 概念과 意義를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다.

素證(素病)은 甲午本에는 없고 庚子本에서 처음 제시된 概念으로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의 改抄過程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素證(素病)은 病證이 발현되기 전에 個體에 이미 內在하는 일종의 素質로서, 病證의 感受性과 發顯樣相을 결정하고, 治法과 豫後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辛丑本은 表裏寒熱 虛實의 八綱概念으로 素證(素病)의 症狀들을 分類 歸納하였다.

참고문헌

1.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
2.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
3.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
4.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板本에 따른 病證 概念의 變化에 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2002.
5.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四象體質醫學會誌, 2002.
6. 박성식. 동의수세보원 사상인 포리병증 편명에 대한 소고. 四象體質醫學會誌, 1994.
7.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연구.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8.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大成文化社, 1998.
9. 趙晃晟. 四象醫學의 原理와 方劑. 集文堂, 2003.
10. 박윤성, 박원환, 김준기, 최달영.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2004.
11.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1991.
12. 곽창규, 이의주, 송일병, 김경석. 太陽人 患者의 素證에 대한 증례보고. 四象體質醫學會誌, 2002.

원문인용서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集文堂, 1998.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刊. 四象醫學內)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